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0



롱우드 가든으로의 특별한 하루

지난달 30일, 골든클럽 회원 36명은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에서 관 광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롱우드 가든(Longwood Gardens)으로 특 별한 여름 소풍을 다녀왔다.

가든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점심 무렵 비 가 그쳐 맛있는 도시락을 같이 먹고 본격적인 관람에 나섰다. 형형 색색의 꽃과 웅장한 온실, 그리고 모네의 그림처럼 펼쳐진 연꽃을 보며 감탄했고, 연꽃의 짧고도 신비로운 생애에 대한 이영범 부회장 님의 설명도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아쉽게도 천둥 번개 소식으로 이 곳의 특별 퍼레이드 분수쇼는 보 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마냥 웃고 떠들며 여유로운 산책과 사진 촬영을 즐겼다.

오고가는 길, 버스 안은 서로간의 이야기 꽃으로 화기애애했고, 이영범 부회장의 주재하에 4조로 나뉘어진 각조의 주장의 도움으 로 가진 년센스 게임과 카드 게임, 이어 이대영 동문의 영어노래 메 들리로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지면서 모두의 웃음소리가 버스를 가 득 메웠다.

선후배를 잇는 따뜻한 유대가 더욱 빛이 나는 하루였다. 김정필 회장과 이영범 부회장의 오랜 계획과 준비로, 또 이 부회장 의 절친인 이영철씨의 도움으로 함께 도출해낸 이 여름날의 아름 다운 추억이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기를 바라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 했다.

[여주영 (명예회원)]

8월 Wallkill Golf 대회



8월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석 기본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shot gun 으로 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뉴욕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van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특히 라운지에서 준비하는 식사가 스테이크를 포함하여 일품이오니 많은 기대바랍니다.

날짜: 8월 21일 (목)

골프장: Wallkill Golf Club

주소: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시간: 11시 (shot gun)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회비: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kbs8717@gmail.com

Longwood Gardens trip 결산

아래와 같이 7월 31일 Longwood Gardens 방문 결산내역을 보고합니다. 입장료와 점심 상품비등은 참가회비 \$50로 충당되었으며, 버스대절 한 비용은 골든클럽 재정에서 지출하여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출 경비	금액	1인당	비고
버스 비용	1886		
버스기사 팁 및 추가비용	200		경로추가 및 팁 비용
일반비용			
입장료	1036	28	37명
점심	432	15	36명
상품비	240		15볼 *16개
기타준비비	50		물, 비닐백, 굴, 바나나, 과자
일반 합계	1758	48	
수입			
참가비	1800	50	36명

10월 16일 단풍놀이 계획

골든클럽에서는 이번 Longwood Gardens 방문에 이어 10월 16일 (목)에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세워지는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날짜를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skills Visitor Center (Mount Tremper, NY)

• 특징:

o 차량 접근 및 주차: 매우 용이하며, 버스 주차 공간도 충분합니다.
o 파빌리온: 커버된 파빌리온과 여러 피크닉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o 산책로 (Senior 친화적): 총 1.5마일의 자연 산책로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ADA(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에 맞춰 조성되어 경사가 거의 없고 평탄하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Esopus Creek Trail은 ADA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o 볼거리: 80피트 높이의 Upper Esopus Fire Tower가 있어 가볍게 둘러볼 수 있으며, 방문자 센터 내부에 Catskills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전시물도 있어 실내에서도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o 단풍: 주변 숲과 개울가의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 장점: 접근성이 매우 좋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산책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룹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이름: 육재희

영문: Jae Hee Choi

단과대: 약대

입학: 78

전화: 973-727-7137

주소: 16 Roc Etam Road, Randolph, NJ 07869





분수대를 배경으로 함께- 막상 이날 분수 공연은 날씨관계로 취소



이곳의 자랑인 Victoria Water Lily 를 관람하는 회원들



Longwood Gardens 방문단 36명 일동



7월 4일 괄선섭 회원덕에서 골프모임 뒤풀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회단과 맛있는 분수대



전문준 한태진 홍중만 회원 부부 골프회동



이준행 명예회장님 방문 -홍중만, 김병순, 이전구, 김정필, 이영범

뉴욕동창회장을 맡으며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욕지역 47대 회장
김병순 (사회대 경제학과82)

2020년에 매월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에 호감을 가지고 뉴욕동창회 골든클럽에 입회하게 되고 골든클럽 회보의 편집위원을 하면서 골든클럽 활동에 다소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에 골든클럽에서 활동하던 동문들이 모두 고령의 선배님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저에게 선배님들이 격려를 많이 하여 주셨으며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을 도와 드린다는 생각으로 골프총무 역할 등을 맡으며 여러가지 골든클럽의 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총동창회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80년대 학번으로 동창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문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동창회장은 수월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동창회는 선배님들이 훌륭하게 이어오고 있었던 전통을 계속 잘 지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기존에 행하고 있었던 연간 2회에 걸쳐서 행하던 골프대회와 피크닉, 그리고 연말 송년회와 같은 행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추가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80년대 학번 이후의 관악클럽 동문들을 어떻게 단합하게 만들고 총동창회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뉴욕지역 동창회의 관악클럽은 과거에도 모임결성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 명맥이 계속 이어져 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저의 동창회장 재임기간에는 관악클럽 모임을 현재 카톡 등으로 소극적인 모임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2000년대 학번 이후 등의 모임을 최대한 대면 모임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있고 동문님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므로 서울대 동창회에 대한 애착이 많다. 단지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 한정된 시간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주어진 현재 상황에 저는 최선을 다 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욕지역 회장으로 봉사할 생각이다.

뉴욕지역 동창회 총회 격려사

고문 정해민 (법대 55)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총회와 이사회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회장으로서 헌신해주신 김정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회장님의 임기는 비록 짧았지만, 그 기여와 성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첫째, 여러 사정으로 위축되었던 동창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며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탁월한 리더십,
둘째, 시대에 맞게 오래된 회칙을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신 점,
셋째,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사와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창회 운영의 신뢰를 높이신 점 등은 오래 기억될 소중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20명에 가까운 80학번 이후 젊은 차세대 회원들의 모임을 갖임으로 향후 젊은 회원들이 동창회에 참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간 수고하신 김정필 회장님, 권정덕 이사장 님 그리고 임원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회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순 동문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순 선임회장님은 뉴욕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80학번의 젊은 세대로서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동창회가 앞으로 더 많은 젊은 동문들과 함께하며 한층 더 활기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 회장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기대하며, 우리 모든 회원들도 하나 되어 화합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8일 2차 관악클럽 모임



5월 4일 1차 관악클럽 모임

2025년 7월 골든클럽 골프대회

7월 24일 Hudson Hills golf club에서 3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가졌다. 더운 날씨이지만 햇볕이 따갑지가 않아 골프 라운딩을 즐기기에 나쁘지 않았다. 지난 2달에 걸쳐 골프대회를 하지 못하여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제법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Tee가 다른 골프장과는 다르게 Red와 White Tee가 없고 Gold, Blue, Green, and Black으로 되어 있어 Red와 Gold는 동일하게 하고 White는 전체 Yard가 합리적인 수준인 Blue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실제 Blue와 Gold Tee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홀이 상당히 있어 White 회원이 다소 이로운 상황이라고 느꼈다.

근접상을 위한 Par 3 Hole이 5개로 많은 회원이 기대를 많이 하였는데 골프장의 운영상의 오류로 전반 9 홀에 있던 3개의 근접상 수상자를 어렵게 알아낼 수 있었다. 한 회원은 급경사면에서 제동 실수로 동승자가 카트에서 뿔겨져 나가는 불상사가 있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다치지 않는 일도 있었고 카트가 움직이지 않아 클럽하우스에 연락하여 새로운 카트를 받아서 라운딩을 계속함에 따라 시간 지체가 상당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음 골프 대회부터는 4명의 동반 Player를 Random하게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덕 회원은 90이 넘는 동문으로 아직도 골프를 즐길수 있는 건강관리를 부러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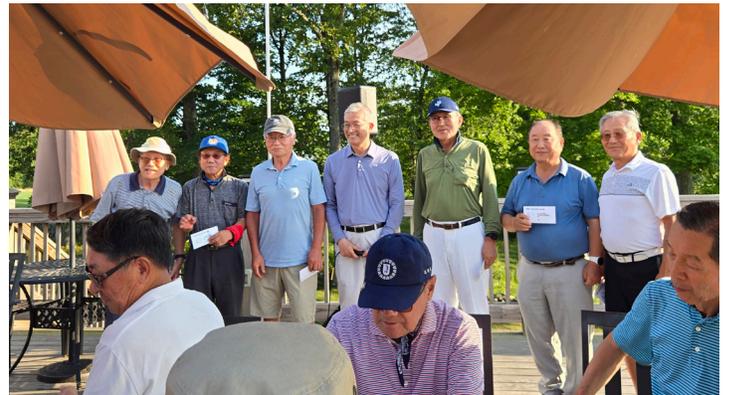
Tee time 전에 모두 모여 좋은 성적을 다지며



골프 라운딩 후 라운지에서의 푸짐한 저녁식사



Close pin: 한태진 홍예경 최병우 곽선섭 이대영



입상자: 임도혁 최병우 박기환 이대영 이위곤 오용호

CROSS COUNTRY TRIP

■ 황영교 (이영범 동문 부인)



Rushmore Memorial Park 큰 바위얼굴에서 기념사진



Arches NP, Canyonlands NP, Capital Reef NP에서 즐거운 한때



시카고에서 LA로 연결되는 가장 오래된 향수를 느끼게 하는 66번 도로



매년 새로운 옥수수 30만개로 장식하는 Corn Palace, SD

몇년 전부터 계획했던 미주대륙횡단을 4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34일간 친구들과 세 부부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 길을 떠나 기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지역마다 변화되는 날씨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었으며 간혹 비바람, 눈폭풍, 우박등을 만났을때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개주를 거쳐 National Park을 중심으로 25개의 파크를 둘러 보았는데 무엇보다 그 광대한 규모에 놀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자동차로 30분이상을 지나면 Visitor Center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사진, 영상, 책자, 지도, 안내원의 설명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지도를

꼭 챙겼습니다.

파크마다 특징이 있고 모양과 색깔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숨어있을 것 같은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는 어둡침침한곳, 화가가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파스텔색의 암벽,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들리는듯한 웅장하고 거대한 캐년, 조각가가 흉내낼 수 없는 여성스러운 로코코풍의 건축물을 담은 곳, 이천개 이상의 아치로 이루어진곳, 사막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붉은 돌기둥들, 메마른 사막에서 사람키의 몇배로 자라는 조슈아 트리, 초야 선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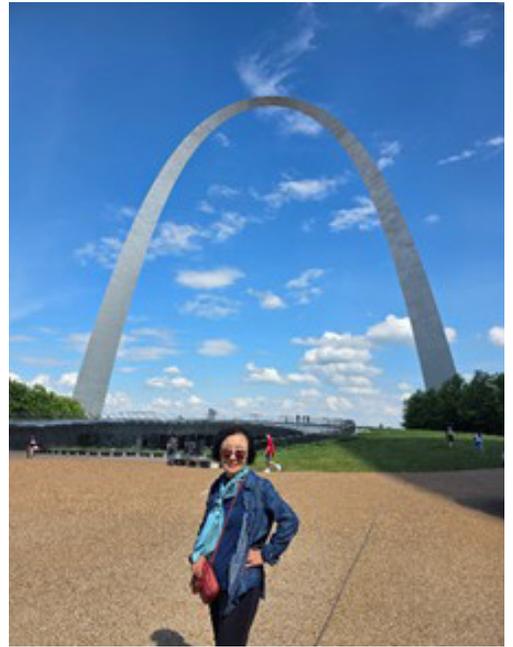
사진을 찍으면 렌즈를 통하여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하는곳,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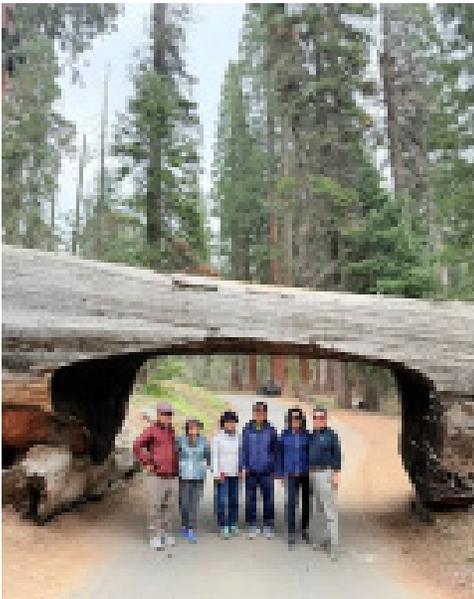
요세미티와 세코이아 국립공원



Antelope Canyon



St. Louis Arch



요세미티 공원



Las Vegas



Goose Neck Park 계곡

꼭대기에서 운무를 먹고 산다는 삼천년 이상된 세계에서 제일 큰 세코이아 나무, 푸르른 계곡을 따라 우렁찬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폭포, 오랜세월을 지나면서 나무둥치가 돌로 변한곳, 태평양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절경등등... 그리고 대자연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반겨준 버팔로, 산양, 무스, 프레리독, 바다사자, 코끼리 물범등 많은 동물들의 무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숨막히게 경이롭고 신비하고 멋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가는곳마다 감동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로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을 만날때 과연 미국은 넓고 축복받은 나라라는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넓은까? 하물며 우주는? 생각과 함께 내 자신이 한 점과도 같이 미미한 존재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하여 각기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매일 짐을 싣다 풀었다 하면서 정처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륙횡단은 잘 마쳤지만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날때 넓은 세상을 보았으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